



미 증시, 2 거래일동안 위험자산회피심리 우위

미국 증시 리뷰

18 일(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발 경기 부진 우려 지속, 옐런 재무장관의 법인세 인상 발언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다우 -0.8%, S&P500 -0.9%, 나스닥 -0.6%). 이날 발표된 4 월 신규주택착공건수가 -9.5%(MoM)로 예상(-2.2%)보다 부진했던 배경은 공급부족에 따른 목재가격 급등이 건설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데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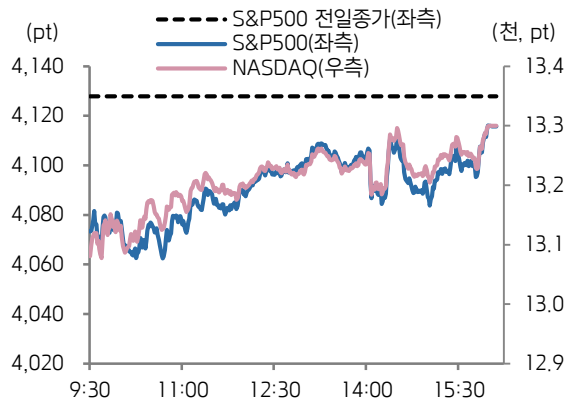
19 일(수)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폭락에 따른 위험자산회피심리 확산으로 장 초반부터 1% 넘는 하락세를 연출.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는 장세가 전개됐으나, 단기 낙폭과대 인식 속 4 월 FO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하락폭을 축소(다우 -0.5%, S&P500 -0.3%, 나스닥 -0.03%)

미국 증시 평가

19 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폭락세를 보인 이유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발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기술적으로 저점 or 지지선을 가능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도 하락세를 가속화시켰다고 판단. 이 같은 암호화폐 시장 붕괴는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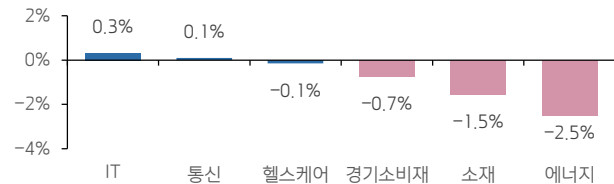
4 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다수 위원들이 경제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의사록 공개 이후 10 년물 금리는 1.62%대에서 1.68%대로 상승하고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기도 했으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의사록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를 소화해내면서 낙폭을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또한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등 압력은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 병목현상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 착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S&P500 일중 차트(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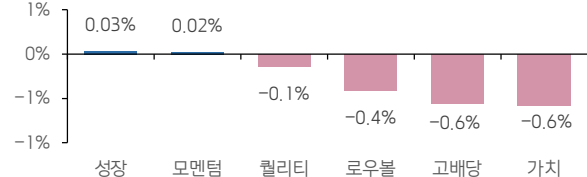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1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1.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암호화폐 시장 폭락의 충격이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산될지 여부 2. 가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세 지속 가능성 3. 외국인 순매도 강도 진정 및 과매도 인식에 따른 순매수 전환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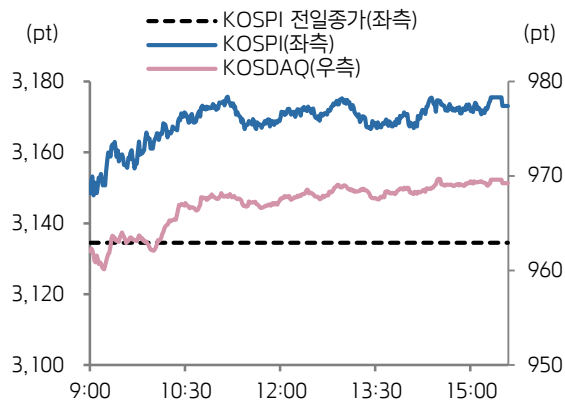
18일(화) 한국 증시는 국내 휴일기간 중 발표 예정인 4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에도, 선진국 경제 재개 가속화 기대감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전거래일 단기 급락세를 연출했던 경기민감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0.7%)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7%), 은행(+1.8%), 건설(+1.6%) 등이 경기 민감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종이목재(-1.4%), 음식료(-0.4%), 통신(-0.3%) 등 내수 방어주 성격이 강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약 3,500억원 순매도하며 6거래일 연속 한국 증시 매도세에 나섰으나,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이 9,600억원대 순매수세에 나서면서 대형주 위주로 지수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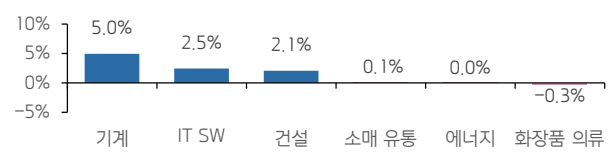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국내 휴일 기간 닛케이(-1.6%), 상해(-0.5%)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 약세, 18~19일 2거래일 간 미국 및 유럽 증시 약세, 암호화폐 시장 폭락 여파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만큼, 전일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국내 증시에서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존재. 그러나 암호화폐라는 자산은 주식 등 다른 위험자산 군에 비해 손실 가능성, 가격 변동성 등 위험 자체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금일 주식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가할 것으로 판단. 많은 참여자들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었던 4월 FOMC 의사록도 전일 미국 증시에서 양호하게 소화해냈다는 점, 여전히 경기 정상화와 기업 이익 개선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금일 증시 하단을 지지시켜주는 요인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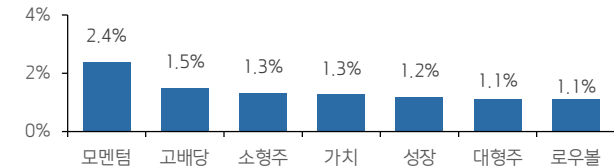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18일)



5월 18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18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류,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